영어어문교육 *제 24 권* 4 호 2018 년 겨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미국(ESL)과 한국(EFL) 대학교의 영어교육 현장 비교 연구

진 승 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Jin, Seunghee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wo university English language classrooms, an ESL classroom in the U.S. vs. an EFL classroom in Korea: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24*(4), 195-220.

In a globalized world where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re frequent, English now acts as a significant medium for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s and cultures. Nowadays, English language learners need to be equipped with intercultural competence to successfully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other cultures (Lochtman & Kappel, 2008), and therefore, assisting the development of students' intercultural competence is a major goal in language education (Pegrum, 2008).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ison of two university English language classrooms, an ESL class in the U.S. and an EFL class in Korea, to examine current classroom practices for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to invesigate teachers' recognition of the need and their preparation for class. Qualitative research was employed to obtain data through document analysi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order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classroom practice. The study identified some problems and challenges facing the current university EFL classroom in Korea and offered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English language program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intercultural competence/qualitative research,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문화간 능력/질적 연구]

I. 서론

오늘날 첨단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였다. 문화간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은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Lustig & Koester, 2006). 특히, 최

근에 이르러 모바일 기술과 다양한 온라인 매체(예. 글로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유튜브, UCC(User-created Contents),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 등)의 발달로 이러한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화 사람들과 원활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화 시대에 대비된 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

영어교육 분야도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영어 학습자들이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를 습득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최근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발달이 아닌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변화하였다(Pegrum, 2008). 이는 외국어 학습자가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 및 문화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모두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Byram, Nichols, & Stevens, 2001).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은 매우 중요한 교육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교 영어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나 실증적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대학교 영어교육 현장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영어 교실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의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수업의 발전 방향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미국 대학의 ESL 교실과 한국 대학의 EFL 교실의 영어교육 현장 사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현재 한국 대학의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국 대학의 영어 교실을 본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자 국가로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 종교가 실생활에 서로 밀접히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언어 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어교육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 ELA(English Language Arts)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ESL/ESOL(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로 구분하여 실행한다(최진희, 김혜진, 2012). 본 연구는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미국 대학의 ESL 교실에 참여해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의 문화간 경험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영어교육현장을 한국 대학의 EFL 교실

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대학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영어 교실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한국과 미국 대학 영어 교실 현장의 교과과정(예. 교육목표, 강의목표, 수업교재, 과제 및 평가 등)은 어떠한가?
2)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한국과 미국 대학 영어 교실 현장의 교육 활동 및 방법(예. 수업 내용 및 활동, 교사의 수업 운영 방식, 교사와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역할 및 상호작용 등)은 어떠한가?
3)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한국과 미국 대학 담당 교수자들의 인식 및 준비도는 어떠한가?

II. 연구의 배경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란?

외국어 교육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yram(1997)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Baker, 2011). Byram(1997)은 그동안 외국어 교육이Hymes(1972)의 의사소통 능력의 교육 모델을 따라 원어민 화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 교수 및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다양한 문화 및 문화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를 학습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처음 제시하였다. 즉 외국어 교육의 방향이 외국어 학습자들이 원어민 학습자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등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회적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Byram, 1997). Byram(1997)은 이러한 문화간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언어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과 문화간 능력이며 모든 구성 요소들의 균형적인 발전 및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간 능력이고 문화간 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태도(Attitude): 호기심, 개방성,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의혹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믿음 대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태도.

2) 지식(Knowledge):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문화적 관습, 산물 등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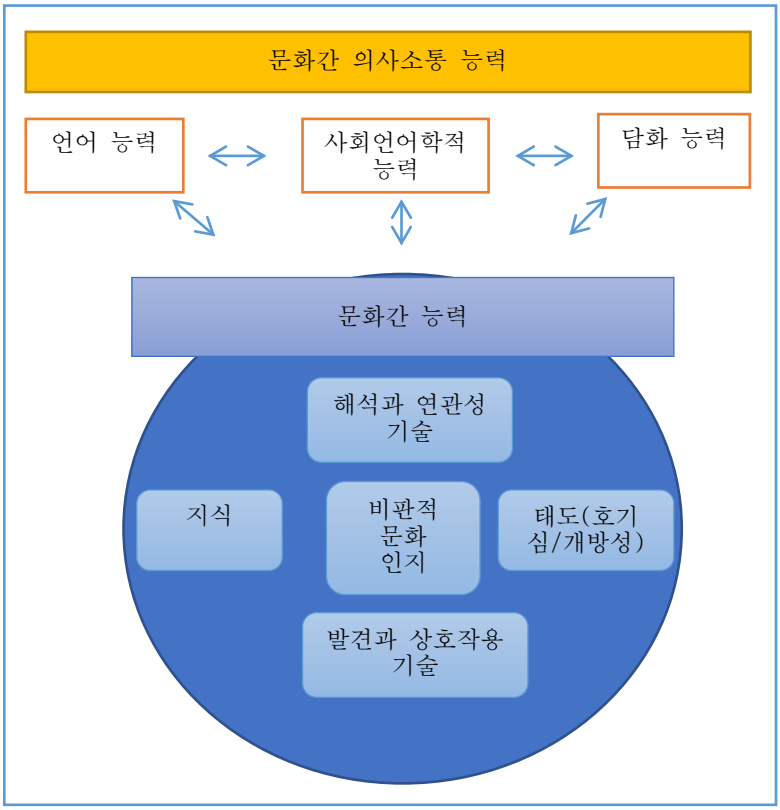
3) 해석과 연관성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다른 문화권의 문서나 사건 등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자신의 문화와 경험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술.

4)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스스로 새로운 문화적 지식을 발견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실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관계 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5) 비판적 문화 인지(Critical Cultural Awareness): 명시적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과 다른 나라 문화, 국가의 다양한 관점, 관습 및 산물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Byram 외 2인, 2001, p.7).

그림 1

Byram(1997, 2009)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



문화간 능력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인 지식, 태도, 해석과 연관성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비판적 문화 인지는 성공적인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해 문화간 화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실제 수업에서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 및 평가 방법을 설계하는 틀로 사용될 수 있다(Byram, 2009). 이렇듯 Byram외 2 인(2001)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고, 다른 문화의 관점 및 세계관을 받아 들이며,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재·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함과 다름에 대해 비판적 평가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을 미래의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영어 학습자의 문화간 능력을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독해(Liaw, 2006), 문화간 교류(intercultural exchange) 경험에 대한 학습자 일기(learner diaries) 및 성찰 일지(written reflections) 쓰기(Helm, 2009), 문화간 경험의 시뮬레이션(Johnson, 1995, Jung & Levintin, 2002) 등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술을 사용해 학습자들이 직접 문화간 경험을 통해 문화간 능력을 증진하게 하는 실증적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예. Borau, Ullrich, Feng, & Shen, 2009; Chun, 2011; Elola & Oskoz, 2008; Helm, 2009; Schuetze, 2008; Wang & Coleman, 2009; Wilcox, 2009). 특히 인터넷 기술을 사용해 다른 문화권 국가에 있는 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실제로 문화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원격협동(telecollabora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Helm, 2009). O'Dowd(2003)와 Belz(2003)의 연구는 이메일, Ware와 Kramsch(2005)와 Schuetze (2008)의 연구는 인터넷 토론 게시판, Tudini(2007)는 채팅, Lee (2011)는 블로그, Borau외 3 인(2009)은 트위터, Jin(2015)은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언어 학습자에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직접 문화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간 능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2. 한국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연구

국내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를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 규정하며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간 화자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요소를 기존의 언어 교수·학습 방법에 통합하고 있다(김진석, 2016). 또한 최근의 2015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 요소가 강화되었고 타문화 이해 및 우리 문화 소개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과목으로 '영어권 문화'가 개설되어 학생들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권 문화’ 과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1) 영어권 문화의 다양한 생활양식, 풍습, 사고방식 등에 관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영어권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고 세계인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3)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영어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체험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을 배양한다(교육부, 2015, p. 109).

또한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영어권 문화’ 과목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각 영역별(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언어 수업과 문화 요소가 통합된 교수·학습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국내 영어교육 문헌을 살펴보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교육 현장은 초등영어 교육이다. 권영환과 고지영(2011)은 초등영어교육에서 새로운 개념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학습에 대한 개념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혔고 김진석(2016)은 초등영어교육에서 적용할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평가 틀과 평가 도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고경희(2014)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에게 문화간 의사소통의 개념을 소개하고 문화교육을 접목한 강좌를 통한 예비교사들의 인식변화 사례를 보고하였다. 구경연(2017)은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원격협력학습의 두 유형을 비교 연구하였고 김진석(2017)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플립러닝 기반 초등영어 문화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내 대학의 영어교육 현장을 대상으로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현재까지 민춘기와 김순임(2010)의 외국어교육의 상호문화 소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 구상에 대한 논의를 한 연구와 문영인(2007)의 대학의 심화교양으로서의 문화간 의사소통 교과목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학생 평가를 통해 수업의 실제를 분석한 연구만 있었다. 정동빈과 남은희(2005)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웹 활용 문화교육이 전통적 구두 방식의 문화교육보다 학생들의 미국 문화 지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아닌 단순한 미국 문화 지식의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여서 제한점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교 현장과 대학생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수 및 학습 방법, 수업 과제, 평가 도구 등과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줄 수 있

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대학 교육현장에서 문화간 능력발달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 대학의 영어교육 현장에 한 학기 동안 직접 참여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문화간 능력 발달이 도모되고 있는지 교실의 현장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EFL 교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수업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ESL수업과 한국 대학의EFL수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나라의 영어 수업 현장에 한 학기씩 직접 참여하여 각 나라 교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대한 수업 현장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 대학의 ESL 수업(ESL15)은 비영어권인 국제 학생들이 듣는 과목으로 과목명은 '미국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한 작문(Composition for American Academic Communication II)'이다. 학생들이 영어 작문 실력 발달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미국의 학교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과목의 학문적 성취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은ESL 교사 1 명과 17명의 국제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6명), 러시아(3명), 대만(2명), 한국(2명), 베트남(2명), 프랑스(1명), 이탈리아(1명)이다.

한국 대학의 EFL수업은 신입생 1학년이 듣는 필수 교양영어 과목으로 과목명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I(독해/작문)'이다. 주 수업 목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독해/작문 실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 수업은 EFL 교사 1명과 한국인 22명 학생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1) 문서분석

문서분석(document analysis)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문서 형태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해석하여 주제에 대해 의미를 산출하고 경험적인 지식과 이해

를 돕는 체계적인 과정이다(Bowen, 2009).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설명 자료, 강의계획서, 교재, 과제, 시험지 및 기타 수업 자료 등이 문서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실제 연구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서류상이나 통계 등의 수치로 밝혀낼 수 없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행동 양식과 행동 양상 등을 밝힐 수 있어 현상에 대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DeWalt & DeWalt, 2002). 본 연구는 참여관찰을 통해 두 나라 교실의 실제 현장에 참여하였고 미리 각 교실의 교사들과 참관 스케줄을 정하여 각 교실당 총 8번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매 참관수업마다 자세한 현장노트(detailed fieldnote)를 작성하였다.

(3) 질적 인터뷰

본 연구는 학기 마지막에 각 교실의 교사들과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v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부록 1에서 볼 수 있다. 각 인터뷰는 스마트폰 오디오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고 인터뷰 시간은 30-40분 정도 걸렸다. 인터뷰 후에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들은Byram(2000)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평가가이드(부록 2 참고)와 Byram(1997, 2009)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적용하여 질적 내용 분석이 실시되었다. 질적 내용 분석의 과정은 White와 Marsh (2006)가 제시한 1) 연구 문제 제기, 2) 표본추출, 3) 코딩, 4) 분석의 총4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활용한 연구문제 제기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수집된 자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여 귀납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 후 코딩을 실시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각 교실의 교과과정과 교육활동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1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 대상, 내용 및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조사 항목
각 교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영어교육 현장 비교	질적 연구 방법 (질적 내용 분석)	문서 분석	문서 (강의계획서, 교재, 과제 및 기타 수업자료)	교육목표, 강의목표, 수업교재 및 과제 수업평가
		참여 관찰	교실 수업현장	수업과정, 수업운영 방법, 수업활동,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 역할, 상호작용
		인터뷰	교수자	교수자의 준비도, 인식

Ⅳ. 연구결과

1. 한국 대학 EFL 교실과 미국 대학 ESL 교실의 교과과정 비교

1) 교육목표 및 강의 목표

(1) 미국 ESL 교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ESL 프로그램은 응용언어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ESL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발달을 도모하고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성취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문적인 환경에서 구두 의사소통기술(oral communication skills)과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의 발달을 도와 미국 대학의 학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매 학기 총 8과목의 ESL 과목이 개설되며 학부생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총 3과목으로 모두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수업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학부생들을 위한 '미국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한 작문(ESL 15: Composition for American Academic Communication II)' 수업에서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비원어민 영어 학습자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

여 미국 대학 생활의 학문적 활동인 독해 및 작문 과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한국 EFL 교실

본 연구가 참여한 EFL 수업은 서울 소재의 한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이다. 이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능력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기술을 균형적으로 발달 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입생들 모두가 수강해야 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영어커뮤니케이션 I, II'가 개설되었으며 각각 1) 독해/작문 수업과 2) 청취/회화 수업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영어커뮤니케이션 II(독해/작문)'의 수업에 참여하였고 강의목표는 중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독해 및 작문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2) 수업 교재, 과제 및 평가

(1) 미국 ESL 교실

미국 ESL 교실에서 사용한 주 교재는 두 가지로 학생들의 독해 실력 증진을 위해 '블레어 리더(The blair reader: Exploring issues and ideas(Kirszner & Mandell, 2011))'와 작문 실력을 위해 선정된 '인 포커스(In focus: Strategies for academic writers(Shulman, 2005))'가 사용되었다. 이 두 주 교재의 학습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매주 수업 전에 그 주에 할당된 읽기 과제를 마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읽기 과제 외에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수업 과제는 총 4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과제(3회), 반성적 저널(reflective journal) 쓰기 과제, 문법 과제, 발표 과제이다. 이 수업의 주 과제인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과제는 (1) 비평 에세이(critique essay), (2) 비교·대조 에세이(comparison/contrast essay), (3) 논쟁 및 종합 에세이(argumentative synthesis essay)이다. 이 수업은 논쟁 및 종합 에세이(25%), 비교·대조 에세이(20%), 비평 에세이(20%), 반성적 저널(15%), 발표(10%), 문법 숙제(5%), 출석 및 참여(5%)로 평가되었다.

(2) 한국 EFL 교실

한국 EFL 교실은 주 수업 교재로 '노스스타(NorthStar: Reading and writing Level 2(Haugnes& Maher, 2009)'를 사용했다. 주 교재를 통해 학생들의 단어, 독해 및 작문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수업 과제로 노스스타 교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매주 온라인 단어 연습 문제와 글쓰기 과제를 완수해야 했다. 교사는 노스스타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하였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수업은 중간고사

(35%), 기말고사(35%), 4번의 단어 퀴즈(20%(5%x4)), 온라인 과제(5%), 출석 및 참여(5%)로 평가되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교재에 실린 독해 자료에 대한 단어, 문법, 이해, 분석을 요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있다. 퀴즈는 교재에 실린 단어 문제들로 학생들이 꾸준히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온라인 과제는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다 참여하고 완수했는지 여부로 성적을 평가하였다.

요약하자면 미국 대학교의 ESL교실은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학문적 성취를 위한 학문적 글쓰기와 구두 의사소통기술의 발달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고 한국 대학교 EFL 교실은 신입생 전체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가 참여한 두 교실 모두 학생들의 작문과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해 개설되었다. 교과과정 측면에서 살펴본 두 수업 모두 명시적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한 주제(theme) 및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2. 한국 대학 EFL 교실과 미국 대학 ESL 교실의 교육활동 및 방법 비교

1) 수업 내용 및 활동

(1) 미국 ESL 교실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미국 ESL수업의 문화간 학습과 관련한 세가지 주요 주제를 발견하였다: 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② 다른 문화와 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지식 증진, ③ 다양한 문화간 주제(intercultural topics)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및 참여이다. 이 세 가지 각 주제를 살펴보고 Byram (1997)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의 문화간 능력의 구성 요소를 근거로 미국의ESL교실의 수업 내용 및 활동이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남

본 연구가 참여한 ESL수업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국제 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수업 자체가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만나서 수업 활동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관계를 맺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즉, 수업이란 공간 자체가 문화간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간 경험은 문화간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Wilson & Flournoy, 2007). Wilson과 Flournoy(2007)의 연구는 원어민과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ESL 학생들이 원어민과 정기적으로 만나 학교, 가족, 종교, 남녀관계, 머리스타일, 날씨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함으로써 문화적 지식을 늘리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다른 점을 쉽게 판단 및 비판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문화간 의사소통의 기회와 경험은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가 참여한 ESL 교실은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만나 수업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등 문화간 의사소통 기회와 경험을 갖을 수 있어 학생들의 문화간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문화간 능력을 발달시킬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② 다른 문화와 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지식 증진

이 ESL수업의 교사는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이 모인 점을 활용하여 학생들 각자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ESL교사와의 인터뷰 내용과 현장노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ESL 교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1) 한번은 자신의 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수업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즐거워합니다. 매우 다양한 문화적 관점들과 경험들이 쏟아져 나와 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비교·대조 에세이에 대해 가르쳤을 때 매우 유용했어요.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방문할 때 어떤 지역을 여행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1)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초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각 나라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및 음식, 여행 정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업활동을 통해 각 나라 고유의 문화 산물(cultural product)인 광고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문화적 차이 및 관점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 (2)의 현장노트 발췌 또한 수업시간 활동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ESL교사가 네 가지 주제 i) 자동차, ii) 흡연, iii) 검열, iv) 건강관리를 교실 화이트보드에 적고 이 네 가지 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급우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문을 만들어 보라고 설명했다. 이 활동에 6분의 시간을 주었다. 두 명의 학생이 발표했는데 한 중국 여학생이 “중국의 검열시스템은 좀 유통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제문을 발표하며 중국의 검열시스템이 다른

> 나라와 달리 매우 엄격하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미국과 다른 점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토의·토론 활동이 진행되었다.

위의 현장노트 발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업 활동 중에 한 중국 학생은 중국의 검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레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검열시스템 관련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의 차이점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을 활용한 토의·토론 활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문화 및 관점의 차이점 등을 이해하기에 유용하고 적절했다. Byram(1997)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모델에서 '지식'은 문화간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구성 요소로 '자신과 다른 나라의 문화권의 사람들, 문화적 관습, 산물 등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된다. 이 ESL수업은 Byram(1997)의 모델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했다.

③ 다양한 문화간 주제에 지속적인 노출 및 참여

이 ESL수업에서는 수업 활동으로 주로 문화간 주제에 대한 토의·토론 및 비판적 작문 과제를 하였다. 다음 (3)은 ESL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의 발췌로 교사는 수업 활동 및 과제로 주로 문화간 주제를 선택해 활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 (3) 수업 활동은… 주로 문화간 주제에 대해 선택하려고 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Amy Tan의 저서였는데, 영어를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난 아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과 어디 출신인지와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어떻게 본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지에 대해 토론하고 이 주제에 대해 작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대조 에세이 작문 과제 주제 중 이슬람 국가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보통 작문 과제를 줄 때 다섯 가지의 주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 항상 한두 개는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미국 TV프로그램이나 월마트에 대한 주제로 미국 문화에 대한 주제도 있었어요. 저는 항상 수업 과제로 문화적 요소가 들어간 주제나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흥미롭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3)의 인터뷰 발췌에서 알 수 있듯이 ESL교사가 수업 활동 및 과제(예. 비교·대조 에세이, 토의·토론 활동, 그 외의 작문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간 주제에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ESL학생들은 중국계 미국작가인 Amy Tan의 'Mother Tongue'이란 작품을 읽고 비평 에세이를 과제로 수행하였는데 이 작품은 다문화 환경에서 자

란 작가 자신이 직접 겪은 문화간 경험과 복잡한 정체성 형성에 대해 쓴 것으로 문화 관련 수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이슬람 국가, 미국 문화, 국제적인 사회 이슈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업 과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작문 과제는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정보를 찾고,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문화간 주제에 더 심도 있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ESL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문화간 주제를 다룬 다양한 수업 활동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화간 사건(intercultural events)과 현상에 대해 읽고 자료를 찾아보며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비교·대조 에세이 과제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관점과 경험을 토대로 다른 나라 문화의 다양한 사건, 산물, 경험, 관점 등을 비교·대조하며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는 Byram(1997) 모델의 문화간 능력 구성요소 중 '해석과 연관성 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석과 연관성 기술'이란 다른 문화권의 문서, 사건, 현상 등을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문화, 경험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Byram, 1997). 즉 이 ESL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간 주제를 다룬 수업 과제 및 활동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Byram(1997) 모델의 문화간 능력 구성 요소인 '지식'과 '해석과 연관성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2) 한국 EFL 교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한국EFL수업에서 문화간 학습과 관련한 어떠한 주제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음의 (4)는 한국 EFL 교사와 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4) 글쎄요… 수업에서 주로 교재 지문이랑 글쓰기 방법에 집중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를 넣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교재에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교재 지문을 위주로 나오구요. 아마 대부분 교재를 중점적으로 수업할 거예요. […….] 아, 만약 교재 지문에 문화적인 내용이 있으면 학생들과 그 주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화를 다룬 지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실의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활동에 다른 나라 문화의 생활양식, 관습,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고 토의·토론할 만한 어떠한 수업 내용 및 활동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은 주로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재에 문화간 주제를 담은 지문 또한 없었다. 이에 더하여 현장노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업 활동은 주로 교사가 교재의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중요 문법 사항과 문장 구조 및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작문 수업은 교사가 교재에 나온 작문법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이 교재의 작문 연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 교사의 수업 방식과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및 상호작용

(1) 미국 ESL 교실

미국 ESL 교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업 시간에 많은 토의·토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사는 연구자가 참관한 매 수업마다 토의·토론 활동을 실시하였고 토의·토론 활동에 수업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토의·토론을 위한 주제는 매주 수업 전에 읽어야 하는 읽기 과제와 관련된 내용, 다양한 문화간 주제, 수업 당시 주목할 만한 이슈(예. 그 당시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신분 도난 사건(identity theft)) 등 매우 다양했다. 교사는 그 날의 토의·토론 주제를 교실 화이트보드에 적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주로 학생들을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반 전체와 그룹으로 토의·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토의·토론을 한 주제는 다음 작문과제의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학생들이 작문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더 심화·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다음 (5)는 미국 ESL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5) 강의 위주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강의는 수업 초반에 그 주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강의에 항상 그런 시간을 할애합니다. 학생들과 여러 주제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업 과제에 연결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는 수업 운영 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중점이 되는 수업이 아니라 토의·토론 등의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의와 연관된 주제에 대해 학생들끼리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참여 중심의 수업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강의 전달자뿐 아니라 교실의 토론 분위기를 돕고 장려하는 토론 촉진자(discussion 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노력을 하였다. 수업의 많은 부분이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수업의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역할보다 토의·토론 활동 등의 적극적인 수업 활동 참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수업 시간에 토의·토론한 주제가 작문과제로 연결되는 점은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참여를 촉진하기에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ESL 교실은 토의·토

론 수업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2) 한국 EFL 교실

본 연구가 참여한 한국 교실의 주요 특징은 교사가 교실 교단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이를 경청하고 필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한국 EFL 교실의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토의·토론 활동과 같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활동은 없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일반적인 질문에는 거의 답하지 않았고 교재의 연습 문제의 답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에만 대답을 하는 등 수업에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끔 교재에 나온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질문 등을 종종 하였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하는 활동도 없었다. 다음 (6)은 한국 교실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6)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답을 잘 안하구요.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 외국인 선생님들과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교재의 진도를 빼기 위해 저도 수업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내용[독해 및 작문 수업]도 그렇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위 (6)의 인터뷰 발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EFL교실에서 교사는 수업 교재의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강의를 하였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힘들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활동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본 연구가 참여한 한국 EFL교실은 교사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단편적인 역할을 하며 교사와 학생들 및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한국 교실의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대학 EFL 수업과 미국 대학 ESL 수업의 담당 교수자의 인식 및 준비도 비교

1) 미국 ESL 교실

미국 교실의 ESL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 (7)의 인터뷰 발췌에서 명확히 밝혔다.

(7) 국제 학생이 미국에 와서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학문적인 활동 및 성취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갑니다. 특히 미국 문화와 대학 문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힘든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언어배경,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학생들이 타인 및 타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각도, 모든 방법으로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임무 및 책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 과제를 줄 때나 수업시간에 같이 토의·토론할 때 문화간 주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양식, 관습, 사고방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연한 사고 및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면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답변을 통해 미국 ESL 교사는 문화 요소가 수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SL 교사는 수업 활동 및 과제에 문화간 주제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간 주제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지식을 쌓으며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 자신의 역량 및 준비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8) 항상 저의 관심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사로서 역할을 할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응용언어학과의 박사 학생으로서 이러한 문화간 능력 발달 관련 주제에 대해 매우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부분은 ESL학생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쪽 부분으로 더 연구하여 교실 수업이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8)의 인터뷰 발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ESL 교사는 이 ESL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응용언어학과의 박사 학생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지식과 그 과정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교실에 잘 적용하려고 애썼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ESL교사는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는 교사로서 매우 준비되었고 역량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2) 한국 EFL 교실

반면 한국 교실에서는 다음 (9)의 한국 EFL 교사와의 인터뷰 발췌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는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9) 제 수업은 학생들의 독해와 작문 발달을 위한 수업이라 문화간 능력 발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더 수업이 재미있고 의미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즉 한국 EFL 교사가 본인의 독해와 작문 수업에 문화간 능력 발달 요소가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음 (10)의 인터뷰 발췌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교사로서 본인의 역량에 대한 질문에서도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 (10) 사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 교실의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한 문화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즉 한국 EFL 교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준비가 부족하며 이를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교사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대한 인지, 준비 및 역량 부족으로 본 연구가 참여한 한국 EFL 수업에 문화간 능력 발달과 관련한 수업 활동 및 과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V. 한국 대학 EFL 교실의 문제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각 교실 모두 주 강의 목표는 학생들의 독해 및 작문 실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수업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ESL 교실은 국제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성공적인 학문적 활동 및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학문적 작문 및 독해 실력 발달을 주요 목표로 하였고 한국 EFL교실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일반적인 독해 및 작문 실력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가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살펴봤듯이 미국의 ESL 교실은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만나 수업 활동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관계를 맺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 자체로 문화간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수업 활동 및 과제들(예. 토의·토론 활동, 작문 과제 등)이 다양한 문화간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간 능력 중 '지식'과 '해석과 연관성 기술'의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수업 운영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은 토의·토론 등의 적극적인 수업 활동 참여를 통해 주도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사는 교실에서 강의 전달자뿐 아니라 교실의 토론 분위기를 돕고 장려하는 토론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노력을 하였다. 미국 교실의 수업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교실의 교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 활동 및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교실의 교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현재 영어교육의 중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참여한 한국 대학의 EFL 교실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 대학 EFL 교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과 교육 역량에 대한 자신감 및 능력의 부재이다. 특히 인터뷰 결과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인 독해 및 작문 수업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문화간 능력 관련 어떠한 문화 요소도 수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따로 그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존의 교과목과 함께 문화 요소가 통합되어 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의 ESL 수업도 독해·작문 발달을 주요 목표로 한 수업이었으나 수업 활동 및 과제들이 문화간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 활용되었고 따라서 주요 강의 목표인 독해 및 작문 실력 발달과 더불어 문화간 능력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뀐 지 장시간이 흘렀지만(Pegrum, 2008) 한국 대학의 실제 영어교육 현장은 이러한 교육목표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교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인식 및 역량 부족은 한국 대학 EFL 교실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다. 교실 현장에서 문화간 능력의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이 성공적인 문화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길 기대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한국 EFL 교실의 수업은 교사가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만 경청하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활동이 없었고 교사와 학생들 및 학생들 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학생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배움의 기회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중심의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목표,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의 부재가 한국 대학 EFL 교실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 관련 미국 대학의 ESL 교실과 한국 대학의 EFL 교실의 교육 현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 대학 EFL수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한국 대학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한국 대학의 영어교육은 교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진희와 김혜진(2012)은 “교육정책의 거시적 설계는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은 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p.191). 즉 교사는 교실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육정책 및 목표를 실제적으로 구현해 주는 존재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사는 교실에서의 학습자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와 관련해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전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대학교 영어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교사/교수 연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로, 기존의 언어 수업과 문화간 능력 요소가 통합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의 영어 교실 수업은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등의 네 가지 언어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한 수업의 실질적 확대 및 수업에서 비율의 제고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수업 시수의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교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언어 수업에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같이 통합적으로 교수·학습할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이 매우 필요하다. 미국 ESL 교실에서 담당 교사가 작문·독해 수업과 문화간 능력 발달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지도

하였듯이 국내 대학 영어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언어 수업과 문화간 능력을 위한 문화 요소가 통합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참여한 수업 교실은 교사가 강의만 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고 학생들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교실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들 및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미국 ESL 교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실에서 토의·토론 수업 활동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규모 그룹 활동으로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 활동을 고려할 수 있겠다. 교사가 중심이 아닌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도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동의 비율의 확대 및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로, 구체적인 수업 목표, 방법 및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EFL 교실에서 문화간 능력 발달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교사와 인터뷰한 결과 문화간 능력 발달이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목표 및 수업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한 평가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다.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어떠한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수업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화간 교육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출발점이다(Byram, 2009). 이를 위해 국가 및 학교 차원에서 수업 목표,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여 기존의 수업 안에서 실행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수업 목표, 수업 방법 및 평가 등을 토대로 교실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이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으로만 진행되어 각 나라의 한 교실만 참여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각 나라의 교육 전체 교실 현장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양적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 통계 및 설문조사 등의 수치상의 자료가 뒷받침되었으면 더 심도 있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관련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영어교육 현장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 현장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발달 관련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영환, 고지영. (2011). 초등영어교육에서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한 문화학습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1*, 5-27.

고경희. (2014).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문화교육과 영어교육의 접목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 *영어영문학, 19*(1), 235-263.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별책 14]. 교육부.

구경연. (2017). 원격협력학습의 두 유형 비교 연구: 한국 초등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현대영미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02-105). 현대영미어문학회.

김진석. (2016) 초등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평가 틀과 평가도구 개발 방향 연구.*초등영어교육, 22*(2), 187-214.

김진석. (2017).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플립러닝 기반 초등영어 문화수업 모형 연구, *한국초등교육, 28*(1), 111-122.

문영인. (2007). 심화교양으로서의 '문화 간 의사소통' 수업모형. *외국어교육연구, 21*(1),17-33.

민춘기, 김순임. (2010). 상호문화 소통능력 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49*, 65-87.

정동빈, 남은희. (2005).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웹 기반 문화교육에 의한 학습 효과. *영어어문교육, 11*(4), 391-411.

최진희, 김혜진. (2012). 미국 교육 과정의 ESL 교육 현황 연구. *국어교육연구, 30*, 171-198.

Baker, W. (2011). Intercultural awareness: Modelling an understanding of cultur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English as a lingua franca.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nication, 11*(3), 197-214.

Belz, J. A. (2003). Linguistic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elecollaboration.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2), 68-99.

Borau, K., Ullrich, C., Feng, J., & Shen, R. (2009). Microblogging for language learning: Using Twitter to train communicative and cultural competence. *ICWL*, 78-87.

Bowen, G. A. (2009).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9*(2), 27-40.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Byram, M. (2000).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Sprogforum, 18*(6), 8-13.

Byram, M. (2009). Intercultural competence in foreign languages: The intercultural speaker and the pedagog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pp. 321-332). Thousand Oaks, CA: SAGE.

Byram, M., Nichols, A., & Stevens, D. (2001).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

Chun, D. M. (2011). Develop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online exchanges. *CALICO Journal, 28*(2), 392-419.

DeWalt, K. M., & DeWalt, B. R. (2002). *Participant observation: A guide for fieldworkers.* Walnut Creek, CA: AltaMira.

Elola, I., & Oskoz, A. (2008). Blogging: Fostering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in foreign langauge and study abroad context. *Foreign Langauge Annals, 41*(3), 454-474.

Haugnes, N., & Maher, B. (2009). *NorthStar: Reading and writing level 2* (3rd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Helm, F. (2009). Language and culture in an online context: What can learner diaries tell us about intercultural competence?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9*(2), 1-14.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pp. 269-293). Harmondsworth: Penguin.

Jin, S. (2015). Using Facebook to promote Korean EFL learners' intercultural competence.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9*(3), 38-51.

Johnson, R. (1995). ESL teacher educ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iscomforts as a learning tool. *TESL CANADA Journal, 12*(2), 59-66.

Jung, C. S. Y.,& Levitin, H. (2002). Using a simulation in an ESL classroom: A descriptive analysis. *Simulation Gaming, 33*(3), 367-375.

Kirszner, L. G., & Mandell, S. R. (2011). *The blair reader: Exploring issues and ideas.* New York: Pearson.

Lee, L. (2011). Blogging: Promoting learner autonomy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study abroad.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5*(3), 87-109.

Liaw, M. (2006). E-learning and the develop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0*(3), 49-64.

Lochtman, K., & Kappel, J. (2008). *The world a global village: Intercultural competence in English.* Foreign Language Teaching. Brussel: Vub Press.

Lustig, M. W., & Koester, J. (2006).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5th ed.). Boston: Pearson.

O'Dowd, R. (2003). Understanding the "other side": Intercultural learning in a Spanish-English e-mail exchange.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2), 118-144.

Pegrum, M. (2008). Film, culture and identity: Critical intercultural literacies for the language classroom.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8*(2), 136-154.

Schuetze, U. (2008). Exchanging second language messages online: Developing an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Foreign Language Annals, 41*(4), 660-672.

Shulman, M. (2005). *In focus: Strategies for academic writ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Tudini, V. (2007). Negotiation and intercultural learning in Italian native speaker chat room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1*(4), 577-601.

Wang, L., & Coleman, J. A. (2009). A survey of Internet-mediated intercultur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ReCALL, 21*(1), 113-129.

Ware, P. D., & Kramsch, C. (2005). Toward an intercultural stance: Teaching German and English through telecollaborat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9*(2), 190-205.

White, M. D., & Marsh, E. E. (2006).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55*(1), 22-45.

Wilcox, K. C. (2009). The impact of student beliefs on the effectiveness of video in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CALICO Journal, 27*(1), 91-100.

Wilson, A., & Flournoy, M. A. (2007). Preparatory courses for student teaching abroad. In K. Cushner & S. Brennan (Eds.), *Intercultural student teaching: A bridge to global competence* (pp. 34-56). Plymouth, UK: Rowman & Littlefield Education.

부록

1. 각 교실의 교수자와 진행한 인터뷰 질문

1) 각 교실 수업에 대한 인터뷰 질문

질문 1. 이 수업(ESL/EFL)의 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질문 2. 수업활동 및 과제에 문화간 요소 및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질문 3. 이 수업이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질문 4.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합니까?
질문 5.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6. 이 수업이 더 향상될 수 있는 제안점이 있습니까?

2) 담당 교수자의 인식, 준비도 및 역량에 관한 인터뷰 질문

질문 1. 현재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화간 능력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질문 2. 현재 본인의 역량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대비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2. Byram(2000)의 평가 가이드(Assessment Guidelines)

A self-assessment of my Intercultural Experience

1) Interest in other people's way of life
- I am interested in other people's experience of daily life, particularly those things not usually presented to outsiders through the media. Example:
- I am also interested in the daily experience of a variety of social groups within a society and not only the dominant culture. Example:

2) Ability to change perspective
- I have realized that I can understand other cultures by seeing thing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by looking at my culture from their perspective. Example:

3) Ability to cope with living in a different culture
- I am able to cope with a range of reactions I have to living in a different culture (euphoria, homesickness, physical and mental discomfort etc.) Example:

4) Knowledge about another country and culture
- I know some important facts about living in the other culture and about the country, state and people. Example:
- I know how to engage in conversation with people of the other culture and maintain a conversation. Example:

5) Knowledge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I know how to resolve misunderstandings which arise from people's lack of awareness of the view point of another culture. Example:

- I know how to discover new information and new aspects of the other culture for myself.
  Example:

예시언어(Example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진승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박사 졸업
제 2 언어 교육(Second Language Education)
228 Chambers Building
University Park, PA 16802, U.S.A.
Email: sydneyjin@gmail.com

Received in October 16th, 2018
Reviewed in November 27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8